

[재경파워인맥 .8] 의성출신 경제인

- ↳낙천적 성격에 의리·체면 중시...政·官·學 두루 포진
- ↳경제계 원로 그룹 속 신진들 진출 괄목
- ↳권홍사·송경태씨 등 고향서 자랑하는 인사
- ↳김충근 미주제강 사장 소장과 선두주자로
- ↳이기운 회장 애향심 돋보여...LA 한인회장도



의(義)와 예(禮)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의성은 행정 조직이 1읍·17면이나 되는 경북도에서 가장 큰 군이다. 면적이 넓은 만큼 인구도 많아 한때는 22만명의 군민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주민의 연령대도 높아 전국 최고령화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리적으로 경북도의 정중간에 위치해 교통망은 사통팔달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어느 곳보다 '젊은 주민'이 전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재경 의성향우회는 의외로 다른 지역보다 발족이 늦었다. 1992년부터 재경 의성군·면, 단위 향우회, 각급학교 동문회를 결성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다 2006년에야 정식 향우회로 결집되었던 것이다.

의성사람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성격이 매우 낙천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의리와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도 짙다.

이런 지역색의 영향으로 이 지역 출신들은 주로 학계와 관계·정계쪽 진출이 돋보인다. 경제계는 원로그룹에서는 소수의 인사들이 재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신진'들의 진출이 괄목할 만하다. 원로그룹 중에서는 올해 대한건설협회 24대 회장으로 연임된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독보적이다.

현재 초대 재경의성향우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송경태 동북무역 대표이사도 의성이 자랑하는 재계인사이다. 그는 사단법인 한국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 재직중이기도 하다. 송 대표는 어린시절 갖은 고생을 겪은 끝에 25세에 생약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자수성가해 오늘날 400여업체 수장이 되었다고 한다.

소장과 중에서는 김충근 미주제강 대표이사 사장 겸 성원파이프 대표이사(43)가 앞서가고 있다. 김 사장은 조지 워싱턴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귀국한 뒤 대우리젠트증권(현 브릿지증권) 계열의 투자자문사 대우투자자문 대표와 쌍용화재(현 흥국쌍용화재)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2006년 MA를 통해 인연을 맺은 미주제강의 대표이사에 취임해 제조업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취임후 그는 공격적인 경영으로 IMF 환란 이후 어려움을 겪어오던 미주제강을 한단계 끌어올려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미교포 중에서도 잘 나가던 의성출신이 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에 당선된 남문기 회장(영문명 크리스 남)이 그이다. 남 회장은 은행원 생활을 청산하고 어느 날 태평양을 건너가 빌딩 청소부로 미국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부동산에 눈을 뜬 그는 현재 미주 한인 최대의 부동산그룹인 뉴스타부동산그룹 및 부동산 경제채널 KNT의 최고경영자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경영인으로는 웅진씽크빅 김준희 대표이사 사장이 의성출신이다. 학습지업계 '빅3'로 연간 5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헌법 반대시위로 구속된 전력때문에 취업에 거듭 실패하다 출판사인 웅진닷컴(당시 웅진출판)에 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히트 상품을 잇따라 내놓았고 평균 2년마다 사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출판전문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경험을 쌓은 뒤 2002년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의성군 단북면 출신으로 휴대폰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셀론의 이기윤 회장은 고향사랑 실천으로 고향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경제인이다. 그의 어머니 팔순기념 잔치날에 지역발전기금 3천만원을 고향에 기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향성금'을 쾌척했다고 한다.

이밖에 서울시내 최대 버스회사인 유쾌하 서울승합 회장과 그의 아들 유한철 대표이사, 김종수 보람제약 회장, 이광영 유덕 레미콘 회장, 강대규 한성관광개발 회장, 김장규 남해화학 대표, 김진열 신원통신공영 회장, 박준용 한일종합산업 회장, 김적성 성지건설 회장 등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성출신 재계인사들이다.

이영환기자 yrlee@yeongnam.com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반도그룹 회장)

- ↳ '질경이' 같은 의지로 삶 개척
- ↳ 부산 건설업 점령 뒤 서울로
- ↳ 두바이 등 해외로 큰 발걸음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반도그룹 회장)은 한국의 건설산업계를 휘어잡고 있는 집념의 의성인이다. 생명력 강한 '질경이'같은 의지로 삶을 개척해 부산의 건설업계를 점령한 뒤 서울로 진출했고, 요즘은 두바이 등 해외로 큰길을 넓히고 있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인생 1막= 도넛 팔던 중학시절

"우리 집안은 광복과 함께 일본에서 돌아온 귀환 동포입니다. 부모님이 고향 의성으로 되돌아와 정착했으나, 땅 한뼉기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 쭉어 먹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사람좋은 아버지는 돈이 있으면 술을 찾았고, 벼들과 어울렸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어머니는 다시 일본으로 돈을 벌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는 여덟살에 겨우 의성초등에 입학했지만, 3학년때 그나마 중단해야 했다. 13세에 혈혈단신으로 부산에 살고 있는 외삼촌 댁을 찾았다. 외삼촌 댁에 있으면 어머니와 연락이 쉽게 닿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혹시 어머니에게로 가는 고깃배를 얻어 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

"외삼촌 가게를 봐주며 몇년을 보낸 뒤 중학교 2학년으로 바로 편입학했습니다. 동급생보다 다섯살이나 많은 덩치 큰 학생이었습니다. 공짜로 먹고 자는 것도 미안한데 외삼촌에게 학비까지 대달라고 할 엄치가 없어 도넛 장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으니 한글은 깨쳤고, 장사를 했으니 셈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는데 영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목에 걸고 도넛 팔러 다니면서 틈틈이 들려다 보곤 했어요."

장사하며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다시 부산 동성고와 동아대 건축학과 야간에 입학해 주경야독을 계속했다.

◇인생 2막= 반도건설 창업의 성공

다른 학생보다 늦은 29세에 대학을 졸업한 그는 부산의 한 기업체에 입사했으나, 3년정도 일한 뒤 퇴사해서 달랑 자전거 한 대를 사서 반도건설을 창업했다.

"사촌동생이랑 후배 한사람과 같이 '집 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 기사가 묵묵히 열심히 일한다' '권 기사가 짓는 집은 잘 짓고 색다르다. 잘 팔린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거리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반도건설은창업된 지 채 10년이 안돼 탄탄한 중견건설업체로 발돋움했고, 부산과 영남권에 집중했던 사업을 서울과 경기의 주요 택지지구 등 수도권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얼마 전 동탄신도시 시범단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권 회장은 현재 대구 수성구 신매동 삼두아파트(재건축), 경기 남양주 진접지구 동시문양과 서울 당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권 회장은 세계 선진 건설사들의 각축장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도 진출해 초고층 주거·업무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 해외에서도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



◇인생 3막= 건설협회장 재임

반도건설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권 회장의 업계 내 입지도 한층 높아졌다. 2005년 2월 협회장에 처음 선출된 데 이어 올 2월 재임에도 성공, 향후 3년동안 회원사가 1만3천여개나 되는 협회와 국내 건설업계를 이끌게 된 것.

"2005년 당시 건설협회장인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과 맞서 도전장을 내밀었을 당시, 모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중견 건설업체가 어떻게 중앙회장을 맡느냐는 것이지요.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전국 회원사를 방문해 건설협회의 비전을 설파하고 나를 알렸습니다."

◇인생 4막= 고향, 그리고...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했던가. 권 회장에게도 시간이 갈수록 고향에 대한 애절함이 커지는 것 같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가슴 깊은 곳에 담겨있습니다. 선친의 산소에도 가고, 권씨 하수회도 참석하고... 일년에 평균 5~6차례 의성으로 갑니다. 형님이 고향을 지키고 계셔서 맘도 든든하고요. 고향 어른들을 위해 경로회를 열기도 했는데, 한번은 '우비'를 선물로 드렸더니 비 오는날 (모두가 입어서) 온 눈발이 노란색으로 변했더라고 형님이 전해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 한다. "나의 질경이 같은 인생 스토리가 고향후배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힘들고 낮잠 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영란기자